

한국 도시 중산층 부부의 에디푸스 콤플렉스-I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권 정 화 · 이 근 후

= Abstract =

Oedipus Complex in the Couples of Korean Urban Middle Class- I

Jung-Wha Kwon, M.D., Kun-Hoo Rhee, M.D.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There are many controversies on the presence of oedipus complex, that is psychoanalytic concept, influenced by the normal or abnormal, and differenct cultural backgrounds.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generalized psychoanalytic theory of oedipus complex which was demonstrated from psychoanalytic subjective experiences about pathologic situations.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generalized psychoanalytic theory of oedipus complex which was demonstrated from psychoanalytic subjective experiences about pathologic situations.

This research indicates the presences of oedipus complex in Korea through social field survey by means of questionnaire method with the subjects of the normal couples of middle class people in Seoul from June 1984 to August 1984, and the patient's couples of the same class via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of general hospitals and private clinics in seoul from June 1984 to December 1984.

The results are as follows :

- 1) there are no differences in oedipal trends between the normal and patient groups, but differences has been found in the male and female groups.
- 2) The male group shows the oedipal trend, but female group shows the antioedipal trend, and such trends have developed predominantly in the only son and only daughter groups.
- 3) the unconscious oedipal motive has been reflected on the process of selection of marital partner, but one half of the subjects who had established such reflection denies the manifest oedipal motive.

서 론

Freud¹⁾(1905)는 남근기의 유아는 이성의 부모를 더 좋아하여 근친상간의욕을 느끼며 동성의 부모에

대하여는 적개심을 가지는데 이러한 심리현상을 에디푸스라고 하였다. 이 에디푸스 콤플렉스의 해결 과정은 남녀 차이가 있으며 또 초자아형성도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반하여 Horney²⁾(1924), Fromm(1959), Jaco-

bson⁴⁾(1976) 등은 남녀간의 본질적 차이라기 보다는 사회문화적 차이라고 하였다.

Roheim⁵⁾(1932), Lincolen⁶⁾(1935)은 이러한 에디푸스 콤플렉스는 모든 인류에 공통으로 존재한다고 하였으며 한국에서도 에디푸스 콤플렉스를 인류 공통의 존재로 보는 견해가 신화나 전설 종교, 제의, 정신병사례 및 꿈분석을 통하여 인정되고 있다⁷⁾⁻¹³⁾.

Barry와 Johnson¹⁴⁾(1958)은 가정의 관습과 풍습의 문제로 근친상간의욕을 부모가 용인하는 문화권이나 가정에서는 근친상간의욕에 따르는 죄책감이 희박하여 정신적 갈등이 적으나, 근친상간의 억압이 강한 문화권일수록 죄책감이 더욱 심각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주관적인 경험을 일반화할 수 있는가에는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이에 각 경험을 포괄적으로 일반화하고 객관화시켜 정신병적인 경우 뿐 아니라 일반인의 사고나 행동에서도 에디푸스 콤플렉스의 존재를 보기 위하여 부부를 중심으로 설문지 조사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 및 방법

A. 조사대상

정상인군은 1984년 6월부터 1984년 8월까지 다음 지역에서 무작위로 집락포집하였다(강남구 서초동; 압구정동; 강동구 둔촌동, 잠실동; 강서구 화곡동; 도봉구 수유동; 서대문구 연희동; 성북구 성북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평구 신사동, 역촌동) 환자군은 1984년 6월부터 1984년 12월까지 서울시내 종합병원과 개인 신경정신과 환자 중 중산층(경제기획원 분류를 기준으로 함)에 속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은 부부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부부 중 어느 한쪽 배우자라도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환자군으로 하였다. 총 4000명의 피험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응답을 보낸 피험자는 1430명이었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여 정상군은 1061명(남 522, 여 539), 환자군은 236명(남 115, 여 121)을 대상으로 하였다.

B. 조사방법

취학전 부모 중 어느 쪽을 좋아하였는지에 대한

기억으로 전생식기 동안의 에디푸스 콤플렉스의 존재를 밝히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단순통계처리하였으며, 각 통계처리는 유의도검증에서 유의도치가 $p \leq 0.5001 \sim 0.0000$ 사이였으며 각 표별로 유의도치의 기제는 생략하였다.

조사결과

A. 일반배경특성

연령(표1)은 22세에서 61세 사이였고 31세에서 45세 사이의 피험자가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대학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출생순위는 외아들 또는 외딸, 맏아들 또는 맏딸, 및 기타 순위로 볼 때 기타가 가장 많았다(표 1).

B. 취학전 부모선호경향

취학적 부모선호경향(표2)에 있어서 정상군과 환자군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남녀별로는 취학전 이성부모선호경향은 남자에서, 취학전 동성부모선호경향은 여자에서 높았다.

남자의 경우 이성부모선호경향을 보면 정상군과 환자군이 각각 61.5%, 63.4%로 동성부모선호경향(정상군 15.5%, 환자군 16.0%)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여자의 경우는 동성의 부모를 선호하는 경우가 정상군 53.5%, 환자군 52.5%로 이성의 부모를 선호한 경향(정상군 25.2%, 환자군 23.3%)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출생순위에 따라 보면 남자의 경우 이성부모선호경향은 외아들이 가장 높았고 동성부모선호경향은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여자의 경우 이성부모선호경향은 출생순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으나, 동성부모선호경향은 외딸에서 가장 높았다.

C. 배우자선택에 대한 영향

자신의 부모를 기준하여 장래의 배우자를 상상해 본 경험(표 3)은 남자의 경우에는 정상군 48.1%, 환자군 37.4%였고, 여자의 경우는 정상군 43.1%, 환자군 29.8%로 정상군이 환자군 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남녀 모두 정상군이 환자군에 비하여 배우자

표 1. 일반배경특성

	정 상 군			환 자 군			계		
	남	녀	계	남	녀	계	남	녀	계
	N=522	N=539	N=1061	N=115	N=121	N=236	N=637	N=660	N=1297
연령	0.6	0.9	0.7	0	0.8	0.4	0.5	0.9	0.7
22세 미만	0.6	0.9	0.7	0	0.8	0.4	0.5	0.9	0.7
23~30	22.4	37.4	30.1	15.6	26.5	21.2	21.2	35.5	28.5
31~45	55.6	46.6	51.0	63.5	59.5	61.5	57.0	48.9	52.9
46~60	19.5	14.5	17.0	20.0	13.2	16.5	19.6	14.2	16.9
60세 이상	1.9	0.6	1.2	0.9	0	0.4	1.7	0.5	1.0
교육수준									
국교이하	3.0	2.6	2.8	12.2	21.5	17.0	4.6	6.1	5.4
중고교	18.0	42.9	30.7	38.2	56.1	47.4	21.9	45.3	33.8
대학이상	79.0	54.5	66.5	49.6	22.4	35.6	73.5	48.6	60.8
출생순위									
외아들·외딸	16.5	14.1	15.3	19.1	16.6	17.8	17.0	14.5	15.7
만아들·만딸	38.1	33.0	35.5	38.3	28.9	33.5	38.1	32.3	35.2
기 타	45.4	52.9	49.2	42.6	54.5	48.7	44.9	53.2	49.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 출생순위별 취학전 부모선호도

	정 상 군			환 자 군			계		
	남	녀	계	남	녀	계	남	녀	계
	N=522	N=539	N=1061	N=115	N=121	N=236	N=637	N=660	N=1297
외아들·외딸	N=85	N=75	N=160	N=20	N=19	N=39	N=105	N=94	N=199
이성부모선호	74.1	22.7	50.0	70.0	31.6	51.3	73.3	24.5	50.2
동성부모선호	11.8	64.0	36.2	25.0	63.1	43.6	14.3	63.8	37.7
모두 좋아함	12.9	10.7	11.9	5.0	5.3	5.1	11.4	9.6	10.6
모두 싫어함	1.2	2.6	1.9	0	0	0	1.0	2.1	1.5
만아들·만딸	N=197	N=177	N=374	N=43	N=35	N=78	N=240	N=212	N=452
이성부모선호	59.4	24.3	42.8	58.1	37.1	48.7	59.2	26.4	43.8
동성부모선호	18.3	48.6	32.6	14.0	45.7	28.2	17.5	48.1	31.9
모두 좋아함	20.8	20.3	20.6	20.9	14.3	18.0	20.8	19.4	20.1
모두 싫어함	1.5	6.8	4.0	7.0	2.9	5.1	2.5	6.1	4.2
기 타	N=234	N=284	N=518	N=47	N=66	N=113	N=281	N=350	N=631
이성부모선호	59.0	26.4	41.1	63.8	13.6	34.5	59.8	24.0	39.9
동성부모선호	14.1	53.9	35.9	14.9	53.1	37.2	14.2	53.7	36.1
모두 좋아함	24.8	15.5	19.7	19.2	30.3	25.7	23.9	18.3	20.8
모두 싫어함	2.1	4.2	3.3	2.1	3.0	2.6	2.1	4.0	3.2
계	N=516	N=536	N=1052	N=110	N=120	N=230	N=626	N=656	N=1282
이성부모선호	61.5	25.2	43.0	63.4	23.3	42.6	61.8	24.7	42.8
동성부모선호	15.5	53.5	34.9	16.0	52.5	35.0	15.6	52.5	34.8
모두 좋아함	21.3	16.4	18.8	17.0	21.7	19.4	20.5	17.4	19.2
모두 싫어함	1.7	4.9	3.3	3.6	2.5	3.0	2.1	4.4	3.2

표 3. 장래배우자 상상시 부모기준경험

	정 상 군			환 자 군			계		
	남	녀	계	남	녀	계	남	녀	계
	N=522	N=539	N=1061	N=115	N=121	N=236	N=637	N=660	N=1297
긍 정	48.1	43.1	45.5	37.4	29.8	33.5	46.2	40.6	43.3
부 정	49.6	55.8	52.8	59.1	65.3	62.3	51.3	57.6	54.5
무 응 답	2.3	1.1	1.7	3.5	4.9	4.2	2.5	1.8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 현재배우자 선택시 부모기준경험

	정 상 군			환 자 군			계		
	남	녀	계	남	녀	계	남	녀	계
	N=522	N=539	N=1061	N=115	N=121	N=236	N=637	N=660	N=1297
긍 정	21.0	20.6	20.8	19.1	16.5	17.8	20.7	19.8	20.3
부 정	76.5	77.9	77.2	77.4	79.3	78.4	76.6	78.2	77.4
무 응 답	2.5	1.5	2.0	3.5	4.2	3.8	2.7	2.0	2.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 배우자와 부모의 유사도

	정 상 군			환 자 군			계		
	남	녀	계	남	녀	계	남	녀	계
	N=522	N=539	N=1061	N=115	N=121	N=236	N=637	N=660	N=1297
긍 정	39.5	40.8	40.1	41.7	38.9	40.3	39.9	40.5	40.2
부 정	59.4	57.5	58.4	57.4	60.3	58.9	59.0	58.0	58.5
무 응 답	1.1	1.7	1.5	0.9	0.8	0.8	1.1	1.5	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상시 부모를 더 많이 기준으로 함을 보여주고, 여자에 비하여 남자가 그런 경향을 더 높게 보였다.

현재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자신의 부모를 기준으로 한 경험(표 4)은 남자의 경우에는 정상군 21.0%, 환자군 19.1%였고 여자의 경우는 정상군 20.6%, 환자군 16.5%로 나타났다. 즉 남녀 차이는 현저하지 않고 다만 정상군이 환자군에 비하여 부모를 기준으로 하여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결혼 후 현재의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와 비슷하다고 한 보고(표 5)는 남자의 경우는 정상군 39.5%, 환자군 41.7%였고 여자의 경우는 정상군 40.8%, 환자군 38.9%를 보였다. 즉 정상군과 환자군 그리고 남녀 모두 약 40%에서 현재의 배우자가 부모와 비슷하다는 보고를 하였다.

위 세 가지를 종합하여 보면(그림 1)장래 배우자에

대하여 에디푸스적 동기에서 상상하여 본 경우에 비하여 실제 선택시에 기준으로 한 경우는 그 절반 정도다. 결혼 후 배우자와 부모의 닮은 점을 인정한 경우와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실제 의식에서는 기준으로 하지 않았으나 무의식적인 에디푸스적 동기가 실현됨을 볼 수 있다.

고 찰

본 조사에서는 취학전 어느 쪽 부모를 좋아했는 지로 에디푸스 콤플렉스의 존재를 피험자 자신의 기억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정상군과 환자군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은 에디푸스 콤플렉스가 신경증이나 정신증의 병적인 표현만이 아니라 성숙한 인격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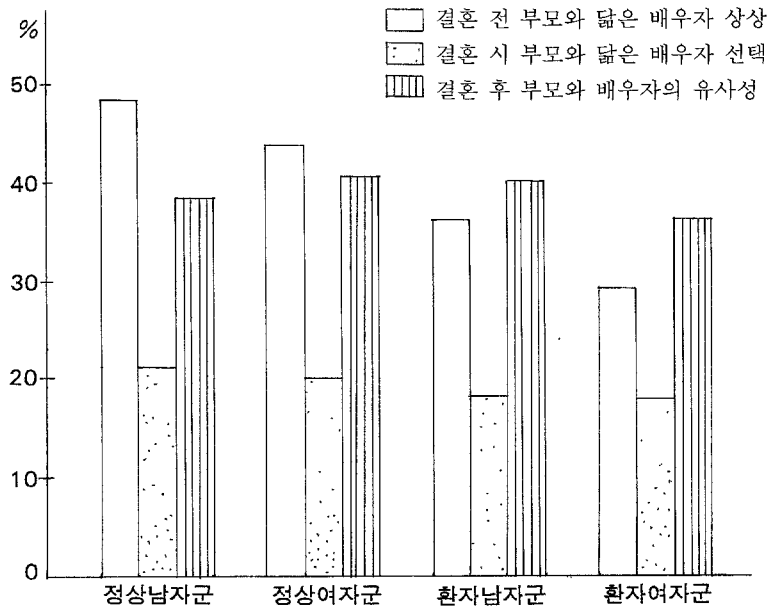


그림 1. 배우자 선택에 대한 부모의 영향.

분석학적 이론을 일반화 할 수 있는 증거가 되었다.

본 조사에서 남자는 어머니를 좋아하는 에디푸스적 경향(oedipal tendency)을 보였고, 여자도 어머니를 좋아한다는 경향(antioedipal tendency)을 보였는데, 이는 남녀 모두 남근기에는 이성의 부모를 좋아한다는 Freud¹⁵⁾(1916)의 이론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Mahler¹⁶⁾(1978)는 일차적인 사랑의 대상인 어머니와의 분리-개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것이 이후의 성격발달에 핵심이 된다고 하였다. Rice¹⁷⁾(1979)도 어린이는 남녀 모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더 많이 지나면서 많은 접촉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더 따르고 동일시한다고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아이의 경우 여자아이보다 동성의 부모를 동일시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더 많은 업무를 맡으며 어린이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한국적 문화상황에서는 이러한 모자 간의 접촉이나 친밀도가 서양보다 더 높을 것으로 짐작된다.

종래 한국에서의 다른 조사에서 에디푸스 콤플렉스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한국의 전통 유교문화는 강한 부권사회이며 이러한 강한 부권사회일수록 에디푸스 콤플렉스가 문제 된다고 지적한 바있다. 그러나 에디푸스 콤플렉스의

투사대상이 아버지라는 단일대상보다도 대가족제도 속의 조부나 삼촌, 형 등에게도 확산되어 부, 모, 자식 간의 삼각관계에 알력이 생기지 않고 불안도 형성되지 않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반면 딸들은 남아선호사상이나 나약한 어머니와 권위있는 아버지 사이에서 남근선망을 더 느낄 수 있고 아버지에 대하여 근친상간의욕을 조장하는 간접적인 여건이 된다¹⁸⁾. 한국의 상호의존적 대인관계도 의존적 성격은 조장하지만 에디푸스 콤플렉스는 약화시키는 작용을 한다¹⁹⁾.

본 조사에서 나타난 남자의 에디푸스적 경향과 여자에서의 상반된 경향은 특히 외아들 외딸의 경우에서 뚜렷하였으며, 이도 어머니의 과잉보호와 의존적인 모자관계에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본 조사에서 남녀 모두 어머니와 밀착되어 있는 양상은 분리-개별화과정의 문제를 시사한다. 효자효녀전에 대한 분석²⁰⁾에서도 에디푸스 콤플렉스를 시사하는 모자관계의 장애를 지적하며 특히 외아들-홀어머니의 관계가 가장 많음도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런 관계를 단순한 병적 갈등의 표현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인간이 지니는 에디푸스 콤플렉스가 '효'라는 바람직한 상황으로 승화된 것이다.

배우자결정에 있어 자신의 부모를 기준으로 배우자를 상상한 경우 실제 선택시에는 대상으로 하지

않았지만 결혼하고 보니 자신의 부모와 비슷하다는 본 조사의 결과는 어릴 때 에디푸스적 경향의 실현을 꿈꾼 경우 배우자결정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작용하여 성취됨을 보여준다. 이는 과거의 근친상간의 욕의 대상이 다시 부각되어 유아기의 대상선택이 사춘기 때의 대상선택결정의 전구가 되며 이러한 의식의 흐름은 무의식적으로 연애대상을 선택하는데 사용된다는 주장¹⁵⁾과도 일치한다. 한국에서 신화나 전설, 고대제의를 통하여 볼 때 유교학자들에 의하여 문헌기록과정에서 삭제변조가능성도 있지만 한국의 문화상황에서는 에디푸스 콤플렉스가 서양보다는 억압되며 totemism으로 상징화되어 실제적인 살부나 혼모의식이 실현되지는 않는다¹⁸⁾. 그러나 민간전승의 민속극에서는 에디푸스 콤플렉스가 보다 자유롭게 나타나며⁸⁾ 한국에서도 도시화에 따라 에디푸스 콤플렉스의 존재를 점차 자유롭게 표현하는 경향을 보인다고²¹⁾ 하였는데, 본 조사의 결과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여 준다.

결 론

1984년 6월부터 1984년 8월까지 집락포집으로 무작위 추출한 중산층 부부를 대상으로 남자 522명, 여자 539명을 정상군으로 하였다. 1984년 6월부터 1984년 12월까지 서울시내 각 신경정신과환자 중 중산층에 속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남자 115명, 여자 121명을 환자군으로 하였다. 이들에게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다음 결과를 얻었다.

1) 취학전 부모 선호경향은 정상군과 환자군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남녀 간에는 차이가 있었다.

2) 남자는 에디푸스적 경향을, 여자는 상반된 경험을 보였고, 이런 경향은 외아들, 외딸에서 특히 뚜렷하였다.

3) 배우자선택에 있어 무의식적인 에디푸스 콤플렉스가 작용하여 성취되는 경향이지만 그 중 반정도는 이를 부정하였다.

References

1) Freud S : *Three essays on sexuality. standard ed.*

VII, London, Hogarth press, 1905

- 2) Horney K : *On genesis of castration complex in woman. Int J Psychoanal* 1924 ; 5 : 50-65
- 3) Fromm E : *The forgotten language. New York, Rinehart, 1959*
- 4) Jacobson E : *Ways of female superego formulation and the female castration conflict. Psychoanal Q* 1976 ; 45 : 525-38
- 5) Roheim G : *Psychoanalysis of primitive cultural types. Int J Psychoanal* 1932 ; 13 : 1-24
- 6) Licoln JS : *Psychoanalysis of primitive cultural types. Int J Psychoanal* 1932 ; 13 : 1-24
- 7) 이병윤 : 한국신화의 정신분석학적 연구. *최신의학* 1963 ; 6(5) : 593-618
- 8) 김광일 : 한국 민속극에 나타난 에디푸스 복합. *문화인류학* 1968 ; 1(1) : 24-34
- 9) 이부영 : 사령의 무속적 치료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연구. *최신의학* 1970 ; 13(1) : 75-90
- 10) 이규동 : 수로부인과 고대제주의 정신분석학적 고찰. *최신의학* 1971 ; 14(5) : 573-91
- 11) 서광윤 · 이병윤 : 한국신화 및 전설속의 에디푸스 콤플렉스. *고려의대잡지* 1973 ; 10(1) : 137-55
- 12) 박종환 : 한국신홍종교의 정신의학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1976 ; 10(4) : 257-68
- 13) 유정희 · 이부영 : 민간신앙에 관련된 정신장애에 대한 고찰. *신경정신의학* 1983 ; 22(2) : 233-52
- 14) Barry BJ, Johnson AM : *The incest barrier. Psychoanal Q* 1958 ; 27 : 485
- 15) Freud S : *Introductory lecture on psychoanalysis, III. standard ed XV. London, Hogarth press, 1916*
- 16) Mahler M : *On human symbiosis and the vicissitudes of individual, vol I, infantile psychosis. New York, Int Univ presss, 1968*
- 17) Rice FP : *Marriage and parenthood. Boston, Allyn and Bacon inc, 1979 ; pp44-64*
- 18) 김광일 : 한국신화의 정신분석학적 연구. *문화인류학* 1969 ; 2(11) : 27-46
- 19) 차준구 : 한국전설에 나타난 효의 문화정신의학

- 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1979 ; 18(1) : 82-90
- 20) 조두영 : 효자효녀전에 있어서 효의 정신분석.
서울의대잡지 1976 ; 17(2) : 119-28
- 21) 한동세 : 한국도시사회에 있어서의 히스테리의
임상적 및 인류학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1964 ; 8
(4) : 327-37